

#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높인다

### 시도교육감협, 초등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등 6개 안건 의결... "교육개혁 함께할 것"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제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상향,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지역 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하고 소외 지역의 현직 교원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9학년도 초등임용시험부터 지역 가산점을 상향(0%, 타 시도 졸업(예정)자 3%)하기로 의결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초등 수업시수 증가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를 제안하기로 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예비교사로서의 준비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부 고시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종액인건비 교부액을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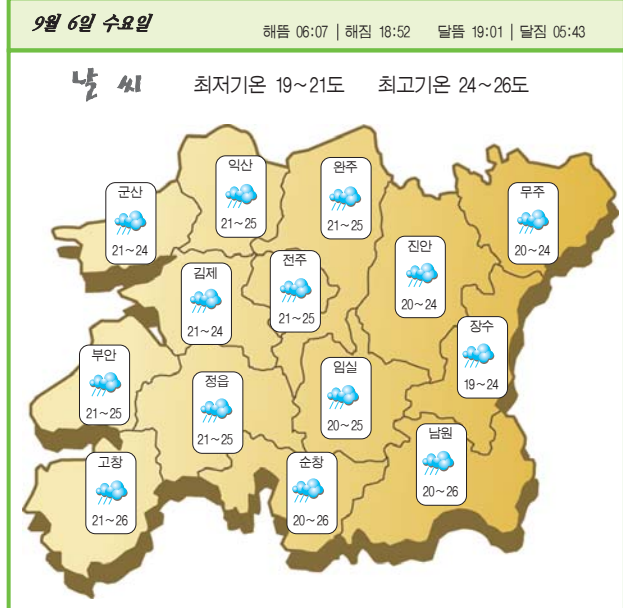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제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6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재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고 규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학수

능력시험 개편안 1년 유예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종합적 교육 개혁안은 이해 당사자나 정치의 논리가 아닌 교육 본연의 가치와 원칙에 의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학생 자기설계 모험활동' 발표

### 대상 '볼라', 최우수상 '그린라이트' · '관심을 가져줘'

전북대학교가 모험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 자기설계 국내·외 모험활동 공모전'이 학생들의 생각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는 이번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평소 품었던 모험활동 아이디어 계획을 받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20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구상한 아이디어를 방학 중 직접 현장을 찾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볼라'팀(무역학과 김소연·이아린·정채은·표미애) 학생들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무역학과 같은 학번 동기들과 구성된 대상 수상팀 '볼라'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정착지인 우수리스크에서 강제이주의 전반적 내용을 살피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생가 등을 직접 찾아 역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일제감정기 블라디보스톡에 자리잡고 있던 한인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비롯해 고려인 강제이주의 첫 출발

지인 라즈돌노예역, 고려인들의 예술 문화 공간인 고려인 문화센터, 안중근 의사를 도우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최재형 선생 생가, 올해 순국 100주년인 이상실 선생 유타비 등을 직접 찾아 동영상 제작해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록빛 전주를 만들자는 목표로 선진지를 찾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제안까지 한 '그린라이트'(사학과 이수현, 조경화)와 고경희, 신문방송학과 손유경)팀과 일본 내 우리 문화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관심을 가져줘'(경영학과 김용경·유호경·임형섭) 팀이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베트남을 찾아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을 체득한 VAT MEN(무역학과 강지원·김빛발)팀과 동네 서점 부흥을 위한 선진 사례를 제시한 '느낌표'(김중훈·오택석)팀도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정채은 학생은 "이번 모험활동을 통해 여름방학을 나만의 생각들을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고려인과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등을 알려나가는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 전북도교육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5일~15일까지 접수

도교육청이 5일부터 15일까지 19개 분야에서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학교 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사회단체의 교육사업 참여 증대를 행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예능활동 지원 등 19개 분야에 10억 여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단체는 공익성 기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며 5일부터 15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제안(민간보조사업)을 통한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한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사후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해 보조사업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 부안여상,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 내년 신입생 일반계열 4학급 · 상업계열 1학급 모집... 교명은 추후 변경

전북도교육청이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특성화고에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유형 변경 내용을 최근 공고했다고 밝혔다.

부안여상의 학교유형 변경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적용되며 학교명은 추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여상은 2018학년도 신입생을 일반계열 4학급, 상업계열 1학급으로 모집하게 된다.

한편 부안여상은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하고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원은 일반계열 4학급 총 96명, 전문계열(경영정보과) 1학급 24명이며 여학생만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전북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타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전북 거주자 ▲중학교 졸업자로서 원서작성일 현재 전북 거주자 ▲전북 혁신도시 이전(예정)기관 종사자의 자녀로 지원 희망자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

격을 통과한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자 중 전북 거주자 ▲'2018학년도 전북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원서접수는 일반계열은 12월 26~28일, 전문계열은 11월 7~8일(특별전형), 11월 10~14일(일반전형) 각각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전문계열이 오는 11월 10일(특별전형)과 11월 27일(일반전형), 일반계열은 내년 1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격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 학력자 중 전북 거주자 ▲'2018학년도 전북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원서접수는 일반계열은 12월 26~28일, 전문계열은 11월 7~8일(특별전형), 11월 10~14일(일반전형) 각각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전문계열이 오는 11월 10일(특별전형)과 11월 27일(일반전형), 일반계열은 내년 1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장수공공도서관, 하반기 학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수공공도서관은 15일부터 2017년 하반기 학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의 종이를 이용하여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 '책과 함께하는 종이감기공예', 학생들의 사

회성, 자신감, 표현력을 길러주는 연극놀이 수업 '온몸으로 나를 표현해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조물조물 라이스클레이' 3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교육·문화적 욕구를 충

족시키고 잠재적 소질개발을 지원한다. 이 과정은 개인방문접수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8일까지 접수받는다.

김혜영 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교관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쁜바는 학교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